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새 신자 피정

- 제 목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 대 상 : 2019년~2022년 세례자
- 일 시 : 12월 4일(일), 10:00~15:30
- 장 소 : 강 당

● 알 림

12월 4일(일)	국군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2차 헌금
12월 9일(금)	지역별 병자영성체(봉성체)
12월 10일(토)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10시)
12월 11일(일)	자선 주일 2차 헌금
매주 목요일	시니어아카데미(강당, 10시 40분)

※ 새벽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12월 4일(일), 11:40	보수홀
M.E.	12월 4일(일), 11:50	6교실
제대회(헌화회)	12월 6일(화), 10:30	2교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12월 7일(수), 19:40	1교실
1Cu-우리 어머니	12월 11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12월 11일(일), 13:30	강 당
임원 모임	12월 14일(수), 20:00	식 당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2월 5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12월 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즐거로운 신앙생활	양승국 스테파노신부님
12월 15일	성사적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인	박해승 요한보스코 신부님

● 대림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12월 12일(월), 20:00
- 3지역/4지역/5지역(구역외) : 12월 13일(화), 20:00

● 성물방 신간 안내

- 제 목 : “흥미진진 성경 읽기”
- 저 자 :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1. 미사 참여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2. 금육과 단식 의무
 - 금육 : 연중 매주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 단식 : 성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3. 고해 성사의 의무 : 부활과 성탄(판공성사)
4. 영성체의 의무
5. 혼인성사의 의무
6. 교무금과 헌금 납부의 의무
 - 성당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가구주) 단위 로 교무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각자 정성껏 봉헌합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11/1~11/30)

구 역 반	성 명	세례명	이전 본당
12구역 5반	최제인	아네스	수원교구/선부동
18구역 1반	박재형	베드로	서울교구/대림동
18구역 3반	구현정	안젤라	수원교구/구성
22구역 4반	김재하	세라피노	인천교구/소사

● 다음 주일(12/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0구역	청 소	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23일 ~ 11월 29일)

• 교 무 금	10,741,000원	
• 주일헌금	4,530,5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358,000원	
정영자 1만원	조흥식50만원	이준우10만원
• 감사헌금 장옥자 5만원	박정순10만원	김수자10만원
이병남 5만원	김정배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4	황원선	심재순	장희석	안상록	권태희
12/11	박혜선	조흥환	도현만	윤상기	김명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4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박승환
12/11	박승환	오광운	박형순	최승일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용서의 가치와 의미

236. 어떤 이들은 화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폭력과 불화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인간 집단이든 그 안에는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 크고 작은 미묘한 권력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지탱하려면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해가 나약한 이들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기에 불의를 모른 채하면서 문제들을 회피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들에 맞서 싸우지 못하기에 표면상의 평화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갈등

237. 용서와 화해는 그리스도교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는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신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신념이 결국 속명론이나 무관심이나 불의, 또는 심지어 불용과 폭력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제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23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폭력이나 불용을 선동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려고 힘을 사용하는 것을 공공연히 단죄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 래서는 안 된다.” 한편 복음은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며 매정한 종의 비유를 듭니다. 이 매정한 종은 용서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39.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부패와 일탈로 얼룩진 이교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내와 관용과 이해를 실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본문은 매우 분명히,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당부합니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일부 권위자들에게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